

한반도 평화와 동성혼 입법저지 위해 합심기도

## 남가주 교계 동성혼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

비대위 조직에 이어 전격 활동 개시

한반도 평화와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한 기도회 및 설명회가 남가주 교계 및 각 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18일(월) 오전 7시 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동성애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몇 차례의 입법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등 보편적인 차별금지 대상에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슬쩍 끼여 넣은 것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성애·동성혼 반대 설교나 강의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 이 중 '임신과 출산'의 경우 광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성(性)의 방종사태가 일어나도 징계할 수 없고,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 분위기에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종교적 차별을 금한 부분에서도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사이비·이단 단체나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특정종교 등이 인권을 말살하려는데도 침묵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성 정체성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동성애나 양성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이 왜곡되고 심각한 윤리 훼손마저 예상된다"며 "기존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일을 구태여 법제화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려는 저의가 무엇인



30돌 맞은 감사한인교회 = 부에나 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교회는 지난 2007년 첫번째 지교회인 코로니감사한인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5개 지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글렌데일에 또 하나의 지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동교회 3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김영길 담임목사는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것이 은혜 위의 은혜일 뿐"이라며 30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했다.

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전 농림부장관)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가 참여한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

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LA에 방문해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진 장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의 질서와 남녀의 성 존엄성, 사회윤리 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준다"며 "앞으로 법안을 반대하게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남가주 교계 및 단체 인사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6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멩 기자

2013년 부활절연합예배 지역별 일정

- ▶LA지역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장소: 동양선교교회(오전 5시30분) ▷설교: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 ▶LA동부지역 ▷주최: LA동부교역자 협의회 ▷장소: 선한청지기교회(오전 5시30분) ▷설교: 김민섭 목사(엠마오 장로교회)
- ▶리버사이드·빅토빌지역 ▷주최: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종재 목사) ▷장소: 창대교회 (오전 6시) ▷설교: 정종재 목사(레드랜드 한인교회)
- ▶밸리지역 ▷주최: 샌퍼난도밸리한인 교역자협의회 ▷장소: 은혜와평강교회 (오전 5시30분) ▷설교: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 ▶벤추라, 옥스나드지역 ▷주최: 벤추라교회협의회 ▷장소: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오전 6시) ▷설교: 조인 목사(벤추라카운티한인장로교회)
- ▶사우스베이지역 ▷주최: 사우스베이 목사회 ▷장소: 토랜스제일장로교회(오전 5시30분) ▷설교: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 ▶세리토스지역 ▷주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장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오전 5시 30분) ▷설교: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 ▶오렌지카운티지역 ▷주최: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소: 은혜한인교회(오전 5시30분) ▷설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 ▶인랜드지역 ▷주최: 인랜드교회협의회 ▷장소: 인랜드교회(오전 5시30분) ▷설교: 박종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

## 교회 리더십, 남성들만 있을때 여성들은...

### 제1회 미주여성크리스천세미나 '여성과 사역' 주제로 열려

제1회 미주 여성 크리스천세미나가 16일 오전 풀러신학교에서 '여성'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여성사역선교센터(이하 CWMM)가 주최했다.

CWMM은 △개인 여성의 회복, 여성사역자 위로 및 격려 사역 △여성사역자들을 위한 그룹사역 △여성교육과 사역 후원을 위한 물질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날 40여명의 여성사역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김예선 교수(풀러신학대), 변명혜 교수(아주사퍼시픽대), 안캐더린 교수(풀러신학대)가 강사로 나서 각각 '성경적 남녀 관계 정립을 위한 한인교회의 과제들', '여성사역자의 정체성과 자아상', '기독교 역사 속의 여성의 리더십과 영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맨 처음 강의에 나선 김예선 교수는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그간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명분 아래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회

내 여성의 위치와 가정에서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통적 가르침이 한국사회 내 아직도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을 간접적으로라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교회 리더십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목회구조가 교인 수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여성 교인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기사 10면으로 이어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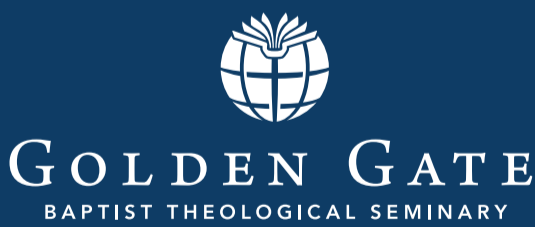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UN 인권위, 낙태 전면 금지에 반대



UN 건물

유엔(UN) 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CAT)의 보고서를 인용해 “낙태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CAT는 낙태에 대한 접근 제한과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고문과 학대 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밝혔다.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Tor-

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과 관련한 유엔 특별조사위원 조안 E. 멘데즈(Juan E. Mendez)는 유엔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및 학대 반대를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장애아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는 고문이라고 말했다.

반낙태단체인 국제생명운동(Human Life International, HLI) 연구 책임자인 브라이언 클로우즈(Brian Clowes)는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가족계획법 혹은 정책의 일환으로 (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강요된 낙태 혹은 불임 수술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7조항은 낙태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이 불임 수술을 권장하고 낙태를 강요하는 나라들을 지지하는 사실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책 <성에 관한 진실(The Facts of Life)>의 저자이기도 한 클로우즈는 “처음부터 유엔은 몇 차례 성명 발표를 제외하고 강요된 낙태를 반대하지 않았다. 유엔연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은 중국의 30년 된 ‘한 자녀’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 한 자녀 정책에는 낙태 강요와 불임 수술이 항상 포함돼 왔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클로우즈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989년 나피스 사딕(Nafis Sadiq) 당시 유엔연구기금 사무총장은 CBS ‘나이트와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엔연구기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낙태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형태의 강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

다”면서 “아울러 그녀는 중국의 인구 결정 정책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2년이 지난 후, 그녀의 주장과 반대되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딕은 이를 계속 부인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클로우즈는 “1991년 4월 11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정부의 인구 감소 노력을 칭찬한 그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클로우즈는 이어 “중국은 지난 10년에 걸친 가족계획정책과 인구성장을 규제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자국의 경험과 특별한 전문가들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유엔은 인도 내에서 이뤄지는 강제 불임수술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은 강요된 낙태에 대한 형식적인 반대를 그만두고, 현재 이뤄지는 거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 책임을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성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는 비정상적인 태아를 임신한 여성, 수술 연기 혹은 적절한 상담과 정보 없이 혼돈스러운 상태로 건강이 나빠진 폴란드 여성들이 수술

을 받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폴란드는 강간, 음급 상황, 심각한 기형에 대한 확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클로우즈는 이에 대해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 시술을 한 이후, 덜 심각한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이 더 쉬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같은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낙태 시술이 구개열, 내반족 등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장애(결함)를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장애아들의 낙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임직식 가져 이종민 목사 부임 6개월만에...

미국장로교(PCUSA) 한미노회 산하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지난 17일 안수식 및 취임식을 거행하는 경사를 맞았다. 한때 사우스베이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던 이 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내분을 겪으면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9월 이종민 목사가 인터림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또 한차례 비상할 태세다.

이날 임직식은 3백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도환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피택자 및 교인을 대상으로 한 헌법 질문, 안수, 약속, 선언 및 안수패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신기 목사와 홍흥규 장로가 권면, 김국진 목사와 도스카(Doska) 장로가 축사했고, 임직자들을 대표해

김근배 장로가 답사, 양인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임직식에서 >김근배 송정에 정은현 등 3명이 장로장립 >김광현 김은선 김진홍 김창효 노인환 이동호 전미경 최태진 등 8명의 집사가 안수 받았으며 >신상욱 이인섭 장로가 취임 >강영미 김태희 배동완 박세희 이은민 이의남 최민자 최완영 최주리 등 9명의 집사와 >강명혜 김병희 김순덕 김혜숙 문현심 박봉남 백낙영 백종희 유기성 조영민 지혜영 천유미 최원자 최은희 홍순자 황경희 등 16명의 권사가 새로 취임했다.

임직자들을 대표해 답사한 김근배 장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우스베이를 대표하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에 이어 임직식을 갖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웠다. 지난해 9월 인터림으로 부임한 이종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임직식에는 3백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도스카(Doska) 장로의 축사를 듣고 있는 임직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제 98차 세계전도자 세미나 개최

한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 사역에 헌신 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사랑선교회 에서는 영혼구원 사역에 힘 쓰시는 교회와 선교사 및 전도자를 위하여 각종 전도지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로 된 전도지, 소책자, 간증지, 달력등) 를 무료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 하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 단기 선교팀 에게 대량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길**

» 특별전도 세미나 «

**일 시 : 3월 23일(토)2013. 오전9:30~오후4:30**

**장 소 :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대흥 장로교회 EM Chapel)

참가비 : \$10. 전화로 미리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 타 : 중식제공 각종 전도지 및 생명의 양식 365일증정.

주 관 : 세계사랑선교회 이삼선 선교사

연락처 : 213-220-3737 / 213-220-3725  
psamslee@gmail.com

기독문협아카데미 48주 과정 개설

기독문학 한번 배워 보실래요?



고영준 목사

문학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특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어진 문학 작품에는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깃들여 있어 읽을수록 그 맛이 깊고 요묘하다. 최근 LA 한인타운에 문학에 관심있는 한인들을 위한 문학강좌가 개설돼 화제다.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이하 기문협) 부설 기독문협아카데미(KCLA Academy)가 바로 그것. 기독 문인들

의 창작활동을 향상시켜 기독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작품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주강사로는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직전회장이자 최근 '창조문예' 평론 부문에서 등단한 영자(永寶) 고영준 목사가 나선다. 그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M. Div)와 웨이스신학대학(D. Min)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애너하임에 위치한 서부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0년간 시무했다. 문인으로서의 활동은 2002년 미주중앙 신인문학상 시 부문 '딸' 수상, 2007년 기독문인 22인 시집 '하늘 빛 붓에 찍어'에 참여함으로써 시작했으며, 2008년 시집 '고향이 있었다'를 상재했다. 2011년과 12년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2012년 월간 <창조문예> 평론 부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 나타난 크리스챤니티(Christianity)가 신인상을 수상해 등단했다.

그의 부친이 지어준 호 '영자(永寶)'는 '영원한 자본'이란 뜻으로 풀

이하자면 '글(문학)은 영원한 자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름 탓인지 실제로 문학을 좋아하게 됐으니 참 신기한 일"이라는 그는, 고교시절 국어선생의 영향을 받아 문학의 재미에 푹 빠져 들었다고.

"갓 담긴 김치에 비해 숙성된 김치가 제 맛을 내듯,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한 편을 생산해 낼 때도 최소 3개월은 묵혀야 진짜 깊은 맛이 납니다. 수십 번의 정정과 퇴고 작업을 거쳐야 하구요."

이번에 개설하는 강좌는 총 48주 과정으로, 봄학기(2-5월)와 가을학기(9-12월)로 나눠 운영된다. 과목은 >기독교와 문학 >리서치 및 글쓰기 >문인 초청 특강으로 구성되며, 글쓰기의 기초부터 등단(시, 소설, 수필, 평론)까지 총망라한다.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16주 동안 쓴 작품 4점을 제출하면 저명한 심사위원들에게 위촉,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추천서를 수여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219-1009 / (213) 272-6031(섬김과 나눔의 교회) 또는 (714) 226-0703로 하면 된다.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

지난달 중순 LA 한인타운에 '세상 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눔과 섬김'에 올인(All-in)하겠다는 교회가 하나 탄생했다. 이름 그대로 나눔과 섬김 교회(담임 엘리야 김 목사)다. 영어로 하면 'Sharing & Serving Church'.

2천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게 담임 엘리야 김 목사의 지론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나눔과 섬김'을 통한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 재

원기회하는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이다.

"나눔 사역은 우선적으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하는 김 목사는 "매주 출석 교인들을 위해 소정의 쌀, 라면 등 생활물품을 지급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물품을 이웃에게 나눠 줌으로써 사랑의 원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교회는 매월 첫 주일 오후 3시 아가페 홈미션(이강원 목사),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발달장애우선교회, 평화의집(전영훈 목사),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홈리스사역, 거리의교회(전예인 목사), 매월 세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노

나눔과 섬김의 교회

평신도 재정관리 원칙·물질과 시간으로 헌신

정을 관리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는 물질로 나누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성도는 시간으로 나누는 운영 철학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다.

엘리야 김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세상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누구든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비단 타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나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목사는 "타교회 성도들을 배려해 일부러 예배 시간도 주일 오후 4시로 정했다"고 했다. 새벽예배는 월-토 오전 5시 30분이며, 저

인환자 돌봄사역·중앙양로병원을, 매월 네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홈리스사역·울타리선교회(나주옥 목사), 매월 네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교도소사역·교도소선교회(조성도 목사)를 방문해 섬긴다.

이밖에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생활교양 강좌도 마련한다. >기초영어회화1 화, 수, 금 오전 9시 30분-11시30분 >기초영어회화2 수, 목, 금 오후 1시30분-3시30분 >시민권 시험 강좌 수,목,금 오후 4시30분-6시 >성경산책(화 오후 3시30분-5시30분 >기독문학강좌(목 오전 10-12시)

▶주소: 978 S. Hoover St. LA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사진 왼쪽)가 17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양희철 목사(오른쪽)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두 목회자는 막역한 선후배 사이다. 양 목사는 이날 '감사 브랜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30돌 맞은 감사한인교회 "감사로 30년, 꿈과 소망을 향하여"

17일 창립 기념감사예배 드려

부애나 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Thanksgiving Korean Church, 담임 김영길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한인교회는 지난 1983년 김영길 목사에 의해 LA 순복음중앙교회로 창설됐다. 1991년 지금의 '감사한인교회'로 개명, 이후 2003년 현재의 부애나 팍 새성전에 입당했다.

지난 2007년 첫번째 지교회인 코로나감사한인교회(백승찬 목사) 개척을 시작으로 빅토리아감사한인교회(박상훈 목사), 그레이트헤스트 영어권교회(피터 조 목사),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김일권 목사), 엘바인 감사한인교회(배상도 목사) 등 5개 지교회를 세웠으며, 현재 글렌데일 지역에 6번째 지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로 30년, 꿈과 소망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5백

여 회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길 목사의 인도로 김영재 목사(A/G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무)가 기도, 양희철 목사가 설교한 가운데 드려졌다.

교회 3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김영길 담임목사는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위의 은혜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나가겠다"고 30주년을 맞는 소감을 말했다. 정하나 기자



Advertisement for '굿모닝 보험' (Good Morning Insuranc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to of Kevin Yoo.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ing a logo, contact info for Grace, and a list of courses and services.

#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조응철 목사



쾌락과 소비, 욕망의 도시 라스베가스에도 과연 교회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예스(Yes)'다. 지난달 중순, 남가주에서 차로 5-6시간 떨어진 라스베가스를 직접 찾았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크고 작은 카지노 건물들 사이로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 건물이 더러 보인다.

믿기지 않겠지만, 라스베가스는 미국 내에서 인구대비 교회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다. 한인교회 수는 대략 30여개. 전체 한인인구는 8천여명 가운데 크리스천은 2천명 남짓 된다. 4명 중에 1명 꼴로 교회에 다니는 셈이니 아직도 한인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축에 속한다.

이곳 한인교회들 가운데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주노회 산하 갈보리장로교회. 이 교회 조응철 담임목사(사진)는 17년째 줄곧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계속해온 인물로, 지난해 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섬겼다.

도미한 지 벌써 30여년을 훌쩍 넘긴 조응철 목사는, 80년대 초반 LA에서 찬양사역을 하다 알라스카로 건너가 1년 8개월간 부교역자로 섬겼다. 17년 전, 전임 목사가 폐암 선고를 받으면서 그를 후임으로 청빙한 것이 라스베가스와의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계기다.

갈보리장로교회는 성도수 55명 규모로, 도시 내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교인수 20-30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면, 비교적 성장한 축에 속한다.

조 목사는 본인 스스로나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한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보수 중의 보수'다. 그는 "우리교회는 웬만해선 다니기 힘든 교회로 소문나 있다"면서 "성경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십일조 안 하면 제직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성경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대충 하고 넘어가질 않는다. 지난 17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과정을 마친 교인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니 말 다했다.

그러면서 "타주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 꼭 도박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찾는 한인들 대다수가 즐기려는 목적으로 오거나,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그러기에 교인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제자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 목사는 덧붙였다.

현재 갈보리장로교회는 350석 규모의 예배당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완공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다. "쉽지 않은 건축이었지만, 교인들의 전적인 헌신은 물론 미주 여러 한인교회에서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먼저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전화: (702) 579-7576

# 백악관 신앙정책실 책임자에 멜리사 로저스 선임

“효율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협력 가져올 책임자” 평가

13일 크리스천포스트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멜리사 로저스(Melisa Rogers·사진)를 새로운 신앙정책실(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책임자 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백악관측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저스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정책실 이취임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의회 의원들과 협력하여 연방 정부가 종교 단체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오바마 대통령 이·취임 당시 신앙정책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조엘 헌터(노슬랜드 교회) 목사는 “그녀는 의장으로서 공명된 의견 수렴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그녀는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은사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나는 특정한 정책과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그녀와 다른 입장이지만, 그녀가 언제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이를 정확히 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백악관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들여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로저스의 임무 중 하나는 각 주의 예산안에 이같은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로저스는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정치적·종교적인 장벽을 잘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미국인들의 공적인 삶에 있어서 종교적 표현 : 최근 법률에 대한 공동 성명(Religious Expression in American Public Life: A Joint Statement of Current Law)’을 이끌

어냈다. 이 성명은 다양한 종교 그룹들과 시민단체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팻 로버트슨 대표부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전 회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로저스는 또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Come Let Us Reason)’라고 불린 프로젝트에서 종교계, 정치계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인들과 진보적 정치인들이 비차별정책, 고문 금지, 낙태를 감소, 이민체제 개혁 등의 이슈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지난 2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조슈아 드보아(Joshua Dubois·30) 신앙정책실 의장의 사임을 알린 바 있다. 드보아 목



사는 2009년부터 오바마 행정부 신앙정책실 책임자로 일해 왔으며, 26세였던 2009년 오바마 대선 캠페에 합

류하면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현재 그는 뉴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서를 준비 중이다.

# 공화당 포트만 상원의원 “내 아들은 동성애자”

연방대법원 심리 앞두고 동성결혼 지지 발언

미트 롬니가 대선 후보이던 당시 공화당측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롬 포트만 상원의원(오하이오), 돌연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관해 법적 해석을 내리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그 시점에 “두 사람이 평생을 사랑으로 함께하길 약속한다면, 정부는 그들이 결혼할 기회를 거부해

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적인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이자 상원의원으로, 오랫동안 동성결혼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그는 “내 아들이 월 포트만(21)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내게 고백했고, 이 일은 나로 하여금 동성결혼에 관해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각 주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주는 부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현재까지 공화당측 상원의원 가운데 동성결혼 지지자는 포트만 의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동성결혼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지지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화당 내에서 존 헨츠만 전 유타주 주지사, 크리스천 토드 전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해 일레나 로즈-레흐티넨 연방하원의원(플로리다), 리차드 하나 연방하원의원(뉴욕),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전 상무장관 등이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소견을 밝힌 상황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3월 26일과 27일 결혼보호법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 8을 심의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4년 전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판결,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재심하게 된 것이다.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cvera.com

# 축 박병구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김성광 목사 담임 목사 취임예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1-2)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귀 교회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재 복음 선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병구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김성광 목사 담임 목사 취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박병구 원로목사

김성광 목사

▶ 일 시 : 주후 2013년 3월 24일(주일) 오후4시

▶ 장 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 남가주 노회  
성재 복음 선교 교회(Emmanuel Gospel Mission Church)

▶ 주 소 : 3313 W. Pico Blvd 2F #A Los Angeles, CA 90019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 남가주 노회, 노회장 류 당열 목사

# 신지식과 신앙 및 불신앙의 결과

## 마태복음 8:23-3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들의 불안과 절망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4:38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37에는 큰 광풍(狂風)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가 파선(破船)되거나 곧 침몰(沈沒)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제자들은 경험과 기술이며 진액(津液)을 다하는 노력(努力)으로 생존(生存)을 위해 몸부림쳐 왔으나 자신들의 경험적 기술과 노력이 한계(限界)에 도달(到達)했다는 자각의식(自覺意識)과 동시에 “이젠 죽는구나!”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비로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큰 광풍에 배가 파선되거나 침몰할 것 같은 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專門家)적인 자부심(自負心)도 대단했겠지만 그날은 아무리 노력해 봤으나 자신들의 기능(技能)이 전혀 기대 걸 것이 없음을 확인하며 죽을까봐 호들갑 면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후일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1-3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절대주권자(絕對主權者)이심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즉 아주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 구동성(異口同聲)으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하며 극히 감탄(感歎)하는 모습에서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근본(根本)과 존재(存在)와 사명(使命)에 대하여 정확(正確)히 알지 못한 상태(狀態)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無知) 때문에 공연히 걱정하며 사력을 다해 헛고생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귀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날의 상황(狀況)을 고찰(考察)해 보면 만물(萬物)을 창조(創造)하시고 주관(主管)하시는 예수님으로, 우주공간(宇宙空間)의 전피조물(全被造物)을 통치(統治)하시는 분이심을 그날은 제자들에게 알아보게 하시고 이후 전인류(全人類)에게 알게 하시려고 정통보수신학(正統保守神

學)의 관념(觀念)으로는 예수께서 친히 광풍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으로 사료(史料)되기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롬11:36)

### 2.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의 성과

마태복음 8:1-4에는 예수께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마치고 하산(下山)하실 때 밤새도록 길목을 지키며 기도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신지식(神知識)의 깊이와 예수님의 능력(能力)의 가능성(可能性)을 알고 믿는다는 신앙고백(信仰告白)과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主權的意志)를 절대존중(絕對尊重)하는 자세(姿勢)를 보임으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을 드렸기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부패한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시므로 문둥병을 고침 받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5-13에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을 지존(至尊)하신 하나님으로 신봉(信奉)하며 그 말씀의 권능(權能)을 절대신뢰(絕對信賴)하는 신앙심(信仰心)을, 군율(軍律)의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원리(原理)를 설명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어 간청하는 백부장의 신앙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하셨으니 가버나움의 백부장같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확실히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뢰하면 구원 얻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찌니라”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는 치유(治癒)의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 3. 귀신(SATAN)이 잘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28-34)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는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5:4에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옆드려 절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하면서 불안해하고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기록인 누가복음 8:31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

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1-3에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써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과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귀신 떼거리를 몽땅 잡아 결박하고 천년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될 것까지 잘 아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종(信從)하여 멸망을 피하려 하지 않음은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듯이 사탄에게는 성령님의 계시나 조명,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9-20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줄 알고자 하느냐”하심을 보아서 귀신이 범죄한 후 천국에서 사탄으로 추방되기 전에 수억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수종하며 호위했었기에 옛 상전이셨던 예수님을 잘 알아 볼 수 있었고 이미 신적 작정(神的作定)에 의하여 때가 되면 자기들이 무저갱에 천년간 인봉되었다가 최후 심판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향불 지옥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임을 꾸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척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령이 이끌어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귀신의 노래가 되어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 해서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떼거리 귀신들의 간청이 “우리를 좇아 내실진대 저기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

고 귀신 떼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며 2,000여 마리가 갑자기 미쳐서 비탈길을 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으나 귀신 떼가 나간 두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돼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신명기14:8에서 “돼지는 굵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것이며 그 사체(死體)도 만지지 말것이니라”하셨습니다.

이같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병자로 귀신의 앞잡이가 되었던 두 사람이 구원받게 된 표적을 통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복음화되기를 시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령사역은 오늘도 구원언어 성령받은 성도들에 의해 인류 복음화의 그날을 재촉(再促)하십니다.

호세아 6:3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서 여호와를 알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13-14에 성령님의 계시(啓示)와 조명(照明), 체험(體驗)과 감동(感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보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로서 천계(天界)와 지계(地界)와 영계(靈界)까지 지배(支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聖徒)가 주님 뜻을 좇아 살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다해도 자신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즉시 믿음의 기도로 문제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앞세울 때 즉시 해결과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시편 50:15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는 성도라면 자기 인생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것이며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장애물(障礙物), 광풍노도(狂風怒濤)가 엄습(掩襲)해 온다해도 당황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예수님께 직고(直告)하면 즉시(即時) 그 길을 평탄(平坦)하고 형통(亨通)하게 하실 것은, 그 길은 주께서 가라신신 길이요 그 길에서 헤아 할 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난풍파(患難風波)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태도(態度)가 신지식(神知識)의 척도(尺度)가 되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정교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xs F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은자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고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4월 2일 2013년**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와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li> <li>▶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li> <li>▶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li> <li>▶ 수요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li> <li>▶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li> <li>▶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li> <li>▶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li> <li>▶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li> <li>▶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li> </ul>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 세이언 제2회 세계대회 개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언)가 지난 4-7일 하와이 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에서 미국을 비롯 한국, 호주, 브라질, 독일, 일본 등 6개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임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표회장에 박형택 목사, 공동대표에 진용식 목사, 사무국장에 이인규 권사가 유임됐다. 또한 미국 대표회장에는 김순관 목사, 공동대표에 나성균 목사, 사무국장에 한익희 목사가 선임됐다.

이어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이단연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등 부서별 활동을 통해 지난 회기 동안 이뤄진 >다락방 소위원회 > 신사도운동 소위원회 > 박윤식 소위원회 > 인터콥주시 소위원회 관련 활동보고가 있었다.

세이언은 이번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안건을 채택 통과시켰다. >비방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월드'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다 >각 지역별 비전스쿨로 인해 교회 내

분이 생기고 있는 '인터콥'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만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 등의 각 일간지에 홍보하고 있는 '돌나라 박명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한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세이언 멤버나 세이언에 대한 동영상이 및 비방 글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고소를 포함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단대책예방세미나 열린다

#### 24일 미주 서부장로교회에서

한편, 오는 24일(일) 오후 1시 15분 미주서부장로교회(1880 W. 220th St. Torrance, 김선익 목사)에서 이단대책예방세미나가 열린다. 주강사로는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한선희 목사(예장미주합동총회 이대위원장)가 나서 신진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310) 328-7020, (213) 484-2574

### <2013 블레싱 새언약> 축제 오는 31일 남가주 새언약교회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가 부활절을 맞아 '2013 블레싱 새언약' 축제를 연다.

교회 측은 종전 LA 한인타운 내 윌픽과 후버에서 예배를 드리다 최근 워싱턴과 웨스트모어랜드 인근 새로 이전한 성전에서 오는 31일 오전 11시 새가주 초청예배 형식으로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지난 2011년 1월 1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가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창설됐다.

동교회 담임 강양규 목사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이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주사피터픽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 과정 중에 있다.

한편,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주일 11시 예배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히 주중에는 제자훈련과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주소: 1501 W. Washington Blvd, #F., Los Angeles, CA 90007  
▶전화: (213) 434-1083  
▶웹사이트: http://www.nccch.org

# 청빙광고

-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 제출처 및 방법: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14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 개교 101주년 맞는 평택대 총장단, LA 방문해 동문 격려

개교 101주년을 맞이한 평택대학교 조기흥 총장과 김영미 부총장이 지난 11일 LA를 방문, 남가주 지역 동문들을 만나 모교와 총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대해 논의했다.

조기흥 총장은 1996년 취임한 이래 15년째 총장직을 이어오고 있는 소위 '오너 총장'(설립자이자 총장)이다. 김영미 부총장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음악학회 부회장, 한국피아노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평택대는 1910년 12월초 조선을 방문한 아더 T.피어선 박사의 유지에 그의 아들인 텔러반 L.피어선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후 오늘날 초교과적 기독교 연합 정신을 상징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조 총장은 미주



평택대학교 총장단이 LA를 방문, 미주 동문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동문간 연대 강화를 위한 논의 외에도 고든코넬신학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자 동부를 방문했으며, 지난 14일에는 평택대 출신인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무료 점심' 행사에도 참여해 배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기부하는 등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

## 웨스트LA한인교회, 제8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드려

### 한상원 목사 "예수님을 가장 잘 좇아간 사도 바울 좇을 것"

웨스트LA한인교회가 지난 17일 오후 3시 제8대 한상원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새 사역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새로 취임한 한상원 담임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가 웨스트LA한인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 제 뜻과 의지가 아니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면서 "올해 교회 표어인 '치유와 회복' 사역에 올인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좇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서 "저 역시 앞으로 사도 바울을 좇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CTS-TV 방송전문위원)는 권면의 자리에서 "음악과 리듬이 있는 교회, 무지개와 같이 찬란한 색깔이 빛나는 교회, 공정하고 공평한 규칙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향량없는 영광이 주일마다 나타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스트LA 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새로 취임한 한상원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예배 설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가 전했으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의 축사와 이동진 목사의 권면이 이어 스티브 모리스 장로가 담임 목사를 소개했다. 이후 오바울 목사(협동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지난 1년간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었던 웨스트LA한인교회 청빙위원회는, 그동안 후임 목사를 찾으려 노력

했지만 어려움을 겪다 방식을 바꿔 교계 명망있는 목회자에게 찾아가 추천받는 형식으로 청빙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청빙위원장인 스티브 모리스 장로가 박희민 목사로부터 한상원 목사를 소개받았고 이후 두 번의 주일설교를 통해 청빙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상원 목사는 1980년대 후반 서울 온누리교회 수석부목사를 거쳐 뉴욕과 LA 두란노서원 대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한 바 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어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히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 >> 기사 1면으로부터 이어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은 삼일고문 방지일-이만산-조용기-손인웅 목사,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 공동총재 전병금 목사(한목협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영규 장로(전 국가

조찬기도회 부회장),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남가주 교계는 미주한인 교계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취지문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LA에서 한반도평화 정착과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해 먼저 깃발을 들게 됐다. 미주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길 원한다"며 "과거 일제시대에 미주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IMF시절 금보내기 운동과 선교사 철수위기에

서 선교사후원미주본부(KAMSA)를 통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교계 인사들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주 공동주최는 남가주교협과 OC교협, 미주 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 한국 주관은 한국교계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2년 무이자 할부 판매!  
엘에이 총판 딜러십 획득

www.Gosmartworld.com

## 후지타만에 강력한 특성!

**FUJITA**  
2013 최신형  
KN9003

전문 안마사에 안마를 원하십니까?  
후지타 전신 마사지체어를 만나세요

세계 유일한 전신 마사지체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허리. 어깨. 교정 시스템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환상적 어깨 3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전문 타이 스트레칭!  
허리 디스크, 자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 단계 강 조절을 선택할수 있음!

**NEW**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성능과 기능은 세계 최고!  
가격은 타사 제품의 반값!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요!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으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른 선택은 구입후 후회나 속상함이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세요 성능과 기능을 - 비교하세요 품질과 가격을

Fujita KN9003	\$4,200	비교 VS	Inada-Sogno	\$8,000
Fujita SMK9100	\$4,300		Panasonic MA-70	\$7,000

Fujita 을 선택한 순간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세계 유일한 플옵션 전문 전신 안마용!  
**베스트 셀러!**

**FUJITA**  
Model: KN9003  
Retail: \$6,499

**SALE**  
35% OFF

+Tax  
Sale: \$4,200

5 year WARRANTY

노약자 및 재활치료용

**FUJITA**  
Model: SMK9100  
Retail: \$6,999

**SALE**  
38% OFF

+Tax  
Sale: \$4,300

5 year WARRANTY

일반 DAILY 마사지용

**FUJITA**  
Model: SMK8800  
Retail: \$4,600

**SALE**  
60% OFF

+Tax  
Sale: \$1,800

3 year WARRANTY

스포츠 전문 마사지용

**Osaki**  
Model: 7200H  
Retail: \$4,600

**SALE**  
21% OFF

+Tax  
Sale: \$3,795

3 year WARRANTY



목 마사지 EZ BIKE RODEO CORE 발지압 진동 운동기구 욕각수 Water 진동 발 마사지 SOLAR수지침 손 마사지 음이온 공기청정기 음이온 핸들커버 이코노하이

[기고] 로잔언약의 신학적 근거(1)

# WCC의 '선교 모라토리움' 반작용으로 탄생한 로잔언약



이동주 박사

이달 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선교신학연구소 주최 '로잔과 에큐메니즘' 학술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이동주 박사(선교신학연구소장)의 '로잔 언약의 신학적 근거'를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 ▶제2조 성경의 권위와 능력

2조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경전에 관해 고백하고 있다. 믿음의 근거인 경전권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를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로잔언약은 이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 성경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으로 온 인류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고백이다.

1971년 WCC 내부에 설치한 '대화-프로그램' 책임자 S. 사마르타는 "경계선이 불안해진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제는 교회연합(Ökumene der Kirche)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류연합(Ökumene der Menschen)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과거적 교회들간의 대화를 넘어 이제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모든 종교인들의 협력을 구하였다.

그러나 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로잔언약이 제6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세계복음화 운동이어야 하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칼'의 원어인 오이쿠메네는 눅 4:15에서 '천하만국'이며, 마 24:14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비난하여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하였다. 에큐메니칼 성경적인 의미로 '천국복음을 받아야 할 온 세상을 의미한다.

온 세상, 즉 타락한 피조물의 공동체인 세상공동체는 모두 성경말씀을 들어야 하고,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문화권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온 교회가 전적

### 로잔언약 15개조, WCC 신앙과 신학에 대한

### 명쾌한 답변과 복음주의적 고백 담겨 있어

### 인본주의 아닌 신 중심주의 신학이 특징

으로 성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 ▶제3조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3조에서는 자연계시를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로잔언약은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전제한 WCC의 대화-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WCC는 1961년 제3차 인도 총회에서 영적 혼합주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인도 신학자 P. 데바난단은 '증인으로 부르심 받다(Zu Zengen berufen)'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타종교들을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이라 주장하였다. 1973년 CWME 방콕대회는 제1분과 회의의 통해 타종교 뿐 아니라 모든 다른 신앙들과 이념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민감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971년 인도 신학자 S. 사마르타는 세계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 철학체계를 수용하여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폐지하고, 존재론을 중심으로 한 확장된 진리개념을 제시하며, 기독교와 성령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타종교와의 대화 문제는 '그리스도 일원론(Christo-monisumus)'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확대시킴으로써(die Christologie ausweitert), 그리고 이 세상 종교들과 세속적 이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해짐으로써 '포괄적인 성령론(umfassende Pneumatologie)'을 만들자는 것이다.

1968년부터 1975년까지 WCC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던 인도 신학자 M. M. Thomas는 혼합주의를 확고하게 세웠다. 이미 1973년 방콕 대회에서, 힌두는 '대화'를 통해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화 공동체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기독교적 힌두(Christlicher Hindu)'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는 2년 후 이 총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혼합주의(Christozentrischen Syntretismus)'를 주장했다. 이 혼합주의 공동체는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CC의 이러한 종교혼합주의적 주장은 현재까지도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1990년 정초 WCC, 정교회, 가톨릭교회가 공동으로 선언한 '바아르 선언문(Baar Statement)'은 "종교 다원성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는, 태초부터 만물가운데 임재하여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에서 출발한다. ...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왔으며, 그 만남을 그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증명해오고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활동영역을 제한 할 수 없다. ... 타종교인들의 삶과 전통 속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다각도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CC에서 고백한 위 선언문들의 종교다원주의는 아직까지 부정되거나 거부된 일이 없다.

WCC가 1971년 이래 대화-프로그램을 통해 위와 같이 종교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쏟아낼 때, 로잔언약은 성경의 증언대로 구세주도 한 분, 복음도 오직 하나 뿐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로잔언약은 "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킴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WCC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께로의 회심 대신 이웃에게로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 대신 인류 공동체의 화해만을 추구할 때, 로잔언약은 구조악을 파괴함으로써 구원을 달성하려는 WCC의 혁명 신학이나 인류 평화공동체라는 WCC

의 유포피악적 목표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적 결단에 의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으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정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로잔언약하는 세계선교의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데 있다.

### ▶제4조 전도의 본질

로잔언약은 전도를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WCC 개념의 '대화'를 거부하였으나, 4조에서 전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타종교를 수용하면서 이상숭배에 관한 개념을 분실해가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화가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라면, 로잔운동의 대화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1967년 WCC 본부 보고서 내용은 전통적인 복음전도의 '회심'이 세상으로부터 전환하는 운동이며, 교회 출석을 강조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초청하는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개종을 proselytism이라는 거부감 나는 단어로 격하시켰다. 이미 1963년 J. C. Hoekendijk은 이 proselytism에 대해 비판하며 "개종선교를 하는 교회(die proselytierende Kirche) 자기를 구원의 중심으로 보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1970년대 초반 방콕대회에서 선언한 '선교 모라토리움'은 현대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WCC는 또한 과거의 선교를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향하고, 선교는 빈번히 포교(pro-paganda)로 왜곡됐으며, 사람을 기독교인의 이미지로 만들거나 교회의 탈( likeness)을 쓰도록 시도한 것인데, 이것은 선교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알려진 1982년도 WCC 공식 문서 '에큐메니컬적 확인(EA, Ecumenical Affirmation)' 제 38항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개종 강요"라고 번역하고, 선교를 중단해달라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즉 '반개종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이 반개종주의의 주장은 1997년 WCC가 발표한 주요 선교 문서인 '공동의 증언을 위한 소명: 신뢰 관계의 선교와 개종주의(Proselytism) 중단' 선언문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선언문 내용은 단순히 개종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은 WCC는 가톨릭, 정교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 동역 관계에 합쳐서 있으니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권인 남미나 정교회권인 구소련 등으로 가서 개종전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

이다. 즉 개신교회는 가톨릭권과 정교회권에서 하는 개종전도를 금지하라는 선언문이다.

WCC는 개종강요에 대해 "정통적인 기독교 증거를 왜곡시키며, 따라서 복음을 위태롭게 만드는 '역증거(counterwitness)'이다.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고, 긴장, 추문, 분열을 불러 일으키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증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언제나 건전한 교제를 방해하고 적대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하였다.

WCC는 비난받아야 할 '개종주의'를 9개 항목으로 명시하였는데, 그 중 첫째 항목에서 "성상을 받드는 모습을 이상숭배라 비난하는 행위, 마리아와 성인을 향해 우상이라고 비웃거나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비난하는 행위"를 지적했고, 다섯째 항목에서 "기존 교인을 다른 교회로 우인하기 위해 물질적 도움과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일곱째 "현재 소속되어 활동하는 교회를 바꾸도록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행위", 아홉째 "개종을 목적으로 외롭고 병들고 우울한 사람들, 혹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가톨릭권이나 정교회권에서 전도한 결실로 인한 개종은 종파나 교회집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는 것임을 필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잃은 영혼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WCC가 사악하고 반역적인 행사로 정죄한 사실이아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 진정한 회개와 개종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힘과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WCC는 복음적인 개종선교를 크게 옹호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선교사들이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을 부으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잃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적 개종 선교를 '회심 선교'라 칭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회심 선교(마 4:17)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유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회심 선교를 수행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막 16:15f).

로잔언약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언약문은 선교를 '개종강요'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 고백한다. 사실로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은 무슬림이나 힌두들에게서 큰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던가?

(계속)  
글= 선교신학연구소장 이동주 박사



미주 여성 크리스천세미나 = 16일 풀러신학대학교에서 '여성과 사역' 주제로 제1회 미주여성 크리스천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사역선교센터(CWMM)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40여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예선 교수(풀러신학대), 변병혜 교수(아주사피사피대), 안케더린 교수(풀러신학대)가 각각 '성경적 남녀 관계 정립을 위한 한인교회의 과제들', '여성사역자의 정체성과 자아상', '기독교 역사속의 여성의 리더십과 영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변병혜 교수(사신 오른쪽)의 열띤 강연에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다.

### WCC, 중동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회원 가입 승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실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투표를 거쳐 요르단과 예루살렘 복음주의 루터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Jordan and Holy Land, 이하 EL-CJHL)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WCC 지도자들은 지난 2년 간 회원 승인 절차를 거쳐 왔으며,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들을 방문하고 해당 지역 회원 교회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투표가 끝난 이후 ELCJHL 주요 무니브 요난(Munib A. Younan) 박사는 자신들이 WCC와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ELCJHL은 WCC와 동행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받은 바 선한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길 원한다. 세계화의 시대, 전 세계 교회들과 하나되어 평화의 도구와 정의의 전령사, 대화의 촉매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 사랑의교회, 사태 수습 위해 '지역발전위' 조직한다

### 오정현 목사 대신할 설교자 선정 등의 역할 감당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 현장. 성전 건축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가 오는 24일 당회를 열고 일명 '지역발전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오정현 목사를 대신해 강단에 오를 설교자를 선정하는 등 교회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오정현 목사는 18일 0시부터 6개월 간 자발적으로 강단에 오르지 않기로 했다. 17일 주일예배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던 셈이다.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역할이 주로 설교에 집중되는 만큼,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오 목사를 대신해 사랑의교회 강단에 오를 설교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담임목사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부목사 혹은 소속 교단 신학교 교수 등을 '임시 설교자'로 세웠던 대형교회들의 선례에 비추면, 사랑의교회 역시 그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국내 초대형교회로 그 상징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오정현 목사에 대한 이번 당회 결정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교회들과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계 내외에서 존경받는 원로들 중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을 강단에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일단 사랑의교회는 24일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직돼 설교자를 선정하기 전 오는 20일 수요일예배 등 주중집회에는 교회 부교역

자들을 설교자로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24일 주일예배 설교자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정현 목사가 6개월 동안 강단을 비우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랑의교회가 전교회적 차원에서 진행해 온 '건축'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은 이번 오 목사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건축 반대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될 '지역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오정현 목사를 비롯해 사랑의교회 앞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17일 당회 발표가 있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오 목사를 반대해 온 이들은 대체로 이번 당회의 결정에 '숨방망이 징계'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당회가 비교적 납득할 만한 선에서 사태를 해결했다"거나 "교회 문제는 교회에 맡기자. 외부에서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일이 '교회 분열'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로 치닫지 않은 것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당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든 교회 분열만은 막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성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담임목사에게까지 이런 원칙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 "타락한 세상 문화, 성경의 잣대로 기독교화 이뤄야"



16일 서울교회에서 '종교개혁과 문화'라는 주제로 제3회 종교개혁신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 종교개혁5백주년기념사업회 학술대회 명저번역자 위촉하기도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가 주최한 '제3회 종교개혁신학 학술대회'가 16일(토)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종교개혁과 문화'였다.

학술대회는 1부 경건회, 2부 서울바하람 창단과 함께하는 음악회, 3부 강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경건회 사회는 오덕교 목사(상임회장, 합동신대 전 총장)가, 기도는 한영태 목사(상임회장, 서울신대 전 총장)가, 성경봉독은 김성봉 목사(회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가, 설교는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 서울교회 원로)가, 축도는 오영석 목사(자문위원, 한신대 전 총장)가 맡았다.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 없는 문화?(창 4:16-24)'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하는 '문화 기독교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문화명령을 통해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가인의 후예들은 악마적 문화, 뿌리 없는 광란의 문화를 만들었다. 현대문화는 굉장한 것 같으나, 인간의 방법대로 세워졌기에 죄악의 문화인 것이다. 교회는 모든 문화를 성경의 잣대로 비판, 분석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 이어 김명용 박사(장신대 총장)의 사회로 명저번역자 위촉식이 진행됐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는 '종교다원주의'와 '인간의 종교적 감흥'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개혁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명저를 번역하기로 결정, 번역자들을 위촉했다.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번역자 대표 황정욱 박사(한신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감사기도를 했다.

이어 안병준 박사(실행위원장, 평택대 교수)의 사회로 2부 서울바하람창단(지휘자 김명영 교수)의 음악회가 열렸다. 기도는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담임)가 했다. 3부 주제 강연회 사회는 김재진 박사(사무총장, 섬김의교회 담임목사)가 맡았으며, 이승구 박사(합동신대 조직신학)는 '종교개혁이 문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박사는 서양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바스찬 바하의 생애를 중심으로 강연하며, "바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 여러 다른 음악들에 대한 폭넓은 공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악적 천재성에 기초해 곡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문화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주변의 문화를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기까지, 바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되고 발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은 문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박병구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썬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초의 흠뻑,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이단정리위원회,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평일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이단정리위원회,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초의 흠뻑,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의 213) 505-7067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성경학교노니노,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텔레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Interfar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유신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성령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아침)  
영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업)  
오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기사 1면으로부터 이어짐



그러면서 김예선 교수는 "교회 리더십이 남성들뿐만 이루어질 경우 교회는 여성의 필요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강의자로 나선 변명혜 교수는 "평소 격려해 주셨던 장로님이 내가 교회 프로젝트의 디렉터가 된다고 하니 '어디 감히 여자까지...'라고 하면서 못마

땅해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여성을 향한 편견으로,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큰 아픔이 되었다"며 "남녀의 역할에서 남자는 사회적이고 여자는 관계적이라고 정의하는 것 등이 사회화된 것이다. 여성들이 가족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변 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토마스 멧 기자



**미안마 신학생 돕는 자선음악회** = 제7회 미안마 원주민신학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정기공연이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목사) 주최 하에 17일 오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미안마 현지 신학생들과 고아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바리톤 기노 가우디오, 장상근, 소프라노 사나 블레이크 힐, 황해경, 최정원, 김숙영 등 정상급 음악가들과 숙명 칸테모스, 미주여성코랄 등 합창단이 출연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음악인들은 '할렐루야'를 합창함으로써 마무리를 장식했다.

미주기독교방송 제작 다큐, WCBA 방송대상 수상

LA에 위치한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연, 만남 그리고 가족>이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이상로 회장)가 주최한 제4회 방송대상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질실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해 해외 동포들의 입양단체가 구성돼 이들이 성장해서도 함께 교류하고 있으며, 2세들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입양에 대한 각종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등 서로 도우며 연대하고 있다.

미주기독교방송 남태순 국장이 기획하고 임정연 PD가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15년간 한국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방주원 고아원에서 연장이 6명을 입양해 키운 김기철-김영란 부부(LA 거주)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 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김 씨 부부는 4살 이상의 아동들을 입양한 경우다.

김 씨의 자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먼저 입양부터 하고 내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며 입양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하며 행복해 한다. 이렇듯 한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는 고귀한 사건이 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아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인 아동들에게 김 씨 부부는 먼 미국 땅 미국에서 가족이라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한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왔던 이들은 자연스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아래서 하나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했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입양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미주기독교방송은 KBS가 해외한인방송사를 대상으로 주최하는 방송프로그램 경연대회인 '서울 프라이즈'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다. 2005년에는 '꿈을 심는 사람'으로 최우수상을, 2006년에는 '세탁왕국'이란 일곱 자매'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우리를 받아 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입상한 바 있다.

[Biz] 건강식품 알고 바로 먹자

**요실금, 방광염? 요로건강을 걱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세종바이오텍 '세종요로정보감' 본격 출시**



세종바이오텍 데이빗 서 대표

최고의 제품만을 공급해 온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공급 회사(세종바이오텍)이 신제품을 선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세종바이오텍>은 한국 최고의 요로건강 건강기능식품인 '세종요로정보감' 판매를 전격 시작한다.

<세종바이오텍>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혈관 청소 및 혈당 조절 기능이 탁월한 '세종요로정보감'과 치매예방, 기억력 개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세종 뇌보감'에 이어 요실금, 방광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세종요로정보감'을 이번에 새로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세종요로정보감'은 크렌베리가 주성분으로 호박,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신장 및 방광 건강 등 요로건강 전반에 걸친 기능개선을 위한 제품이다. 특히, 주원료인 파크렌 크렌베리는 미국 DBS사의 개발제품으로 기존의 크렌베리의 100배 이상 농축된 원료로 미국, 영국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크레이튼대학의 임상을 통해 요로건강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한국식약청(KFDA)으로부터 요로건강의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기에 제품박스에 한국식약청의 인증마크와 기능성(효능)이 표기되어 누구나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한 박스에 195불이며, 2개월 가량 복용 가능하다. (참고 관련 웹사이트 WWW.SEJONGBIOTECH.US, WWW.PACRAN.COM, WWW.PACRAN.CO.KR)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시는 분, 잠을 잘 때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는 분 ▷방광염으로 혈뇨,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분 ▷요실금으로 가벼운 자극에도 소변이 흐르는 분 ▷출산, 비만 등 성인의 이유로 소변 민감성이 큰 분 ▷전립선비대증 및 남성요실금에도 탁월한 효능

▶문의: 세종바이오텍 본사 (1-877-256-7671), LA (213-383-8899)

# 고든 맥도날드의 조언... "리더의 출발점, 무릎에서부터"

## 내면의 토대 튼튼히 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기 쉬워



전세계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 콜로라도 주립대와 덴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메사추세츠주 렉싱턴의 그레이스 채플에서 40년간 목회했고, 미국 기독교사회(MF) 대표와 세계구호선교회(World Relief) 총재를 역임했다.

전세계가 열광한 스티디셀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저자 고든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던 1960년대 초반은 한국교회의 지극히 비숙련된 것 같다.

"당시 많은 이들의 눈에 교회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시대 부합(relevance)'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교회와 설교자들이 다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더러는 매우 뒤쳐져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 결과 신학교 동창생들의 상당수가 선교지로, 선교단체로, 교목으로, 상담이라 불리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했다. 우리 중 일부만이 실제로 목회 사역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 ◆기독교가 바닥을 치는 시기, 목회자의 자세는

당시 맥도날드 목사에게는 매우 새로운 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팔러 찾아왔다고 한다. "시작하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똑같았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목사들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 모두를 구해 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현재 '수천 명(수천)'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젊은' 맥도날드 목사는 어떤 접근법을 따라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이에게 가서 물었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다. 그분의 대답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와 자네 리더들은 오직 무릎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을걸세. 자네와 자네 교회를 위한 한 가지 길이 있을 걸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때 자네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게."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조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고든 맥도날드가 청취했던 이 조언은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원제 Building Below the Waterline-이상 IVP)>에서 맥도날드가 '리더의 내적인 삶'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무릎이 이끄는 사역'이다. "적지 않은 젊은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약속해 주는 세미나에 가서, 그들의 교회에 개혁에 가까운 무언가가 일어나리라는 기대와 열정을 품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1년 후 일부는 비통한 상태로 거 부당하고 패잔병이 된 채 사역을 그만두는 과정을 밟는다. 마음이 상한 사상이 아주 많다...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에서, 콜로라도에서 작동했던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무릎이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 출발점으로부터 그는 '무릎으로 이끄는' 몇 가지 사역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전략적인 사역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다. 스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일상적인 삶과 사역 즉 교회 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에 충실하라 스거의 모든 것이 이미 과거에 이르러진 식으로 시도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가능성과 합정을 모두 드러내는 기독교 운동의 역사를 배우라 스엄선한 여러 저자들(그의 경우 폴 트루니에, 스탠리 존스, 존 스토포트 등)의 글과 '판대 비행'을 하라 스성경에 기반을 두라 등 하나같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 ◆친밀감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성적 유혹' 극복하기

'도덕적 실패'에 대한 내용도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몇 년 전 자신도 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가 꺼낸 이야기는 '성(性)'에 대한 것이었다. "재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 정치인들에게는 권력,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이 가장 큰 문제이듯,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사람

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친밀함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에 따르면, 목회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평균을 넘어서고, 사람들의 외적인 삶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경계를 넘어 부적절한 데로 나아가는 행동에까지 이른다. 그런 상황 아래, 있는 이들 사이에는 소위 '육체적인 유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종종 멋진 특권과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도덕적 실패의 모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질려들었다(enmeshment)"고 할 만한 상황으로 치달는다. 이런 가능성은 둘 중 누구든 가정 내의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더 커진다. '도덕적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역자들은 "처음엔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성적인 부분은 아주 순수한 것 같은 다른 무언가에서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리더의 '특권'은 영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규칙과 경계를 한쪽으로 제쳐두도록 유혹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자기 정당화 능력은 실로 놀랄 만하며 매우 무섭다."

맥도날드는 리더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종종 리더는 외롭다는 말을 하곤 한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리더의 잘못된 수 있다." 영적 리더라면 가정이나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를 위해, 또는 동성 친구와 인격적인 우정을 누리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그는 조언한다. "도덕적 실패는 '중도 포기'하는 목회자들의 이유 중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이다."

그는 목회자의 삶이 더 많은 요구사항들과 기대들로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실패'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방책'들을 달아놓았다. △도덕적 유혹의 숲을 어슬렁거리지 말고, 부대장이 전행터에 나갈 때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듯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성과 함께 격식 없는 저녁식사 하지 않기, 이성과 어떤 여행도 같이 하지 않기, 세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팀 관계는 갖지 않기 등의 행동규약을 만드는 동료 그룹에 모든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속하도록 요청하자 △모든 목회자 부부가 그들을 멘토링해 주는 부부를 반드시 두도록 하자 △대형교회 사역의 위험성에 대해 좀더 정직해져서, 결혼 생활, 정신적·정서적 건강, 영적 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하자 △오늘날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 대부분은 모든 면에서 건강한 친밀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성적인 쪽으로 향하기 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등이다.

### ◆수면 아래 튼튼한 토대 없이, 수면 위에 건물들을 지을 수 없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 요즘, 고든 맥도날드는 왜 '영적 리더를 위한 내면세계 건축법(부제)' 전수에 나섰을까. "리더가 오랜 세월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냐는 수면 아래에서(리더의 영혼 안에서) 하는 작업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 작업을 예배, 경건의 시간, 영성 훈련이라 부른다. 그 작업은 조용한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보시는 곳에서 이뤄진다. 오늘날 리더십에서는 비전이나 조직의 전략, 메시지의 시장 반응도 같은 주제들이 많이 강조되지만, 이렇게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여긴다면, 수년 내에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리더의 네 가지 자질(비전을 전하는 능력,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예리한 자기 이해), 일구어야 할 영혼의 다섯 가지 덕목(겸손, 생산적인 공허함, 완고함이 아닌 견고함,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절제), 내면 세계의 지도 그리기(일기 쓰기의 유용성) 등 크나큰 성공과 쓰디쓴 실패를 모두 경험한 그의 오랜 체험에서 나온 진국 같은 조언들로 가득하다.



MP에서 올해 초 나온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왼쪽)와 지난 2011년 나온 원서의 표지. 수정한 제목에 맞춰 세련된 표지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이되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타이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청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949)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속박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 (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6:00 (토)

**김함양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미리본당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본당)  
T.562-677-7777, F.562-677-7778 /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949)857-9425 / F.(949)857-9242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지 사른 담임목사**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규합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213) 447-8169 / F.(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949) 514-4346 F.(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중보 오후 8:00 분당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3월중 구연산 신제품 출시될 때까지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여부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 “우리 자신이 회복되면, 달리다꿈의 기적 일으킬 수 있어”

#### 베스트셀러 <오두막>의 윌리엄 폴 영, 신작 <갈림길> 펴내

베스트셀러 <오두막>의 작가 윌리엄 폴 영(William Paul Young)이 5년 만에 신작 <갈림길(Cross Roads)>을 펴내고 한국을 찾았다. <갈림길>은 전편 <오두막>과 마찬가지로 큰 고난을 당한 주인공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상처와 오토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스스로 쌓아 놓은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림길>에서 주인공 앤서니 스펜서는 고독하지만 부유하고 편안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길에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후 그의 ‘영혼’은 수많은 갈림길들을 만나게 되고, 아무런 지도도 없이 선택을 거듭하던 끝에 아일랜드인 남성 책과 허름한 농장에 살고 있는 남성 ‘예수’, ‘오두막’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할머니 등을 만나게 된다.

이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이 황폐한 곳이 자신의 내면세계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가 거거하는 곳이 작고 누추한 이유도 결국 자신 때문임을 깨닫는다. ‘토니’라 불리는 스펜서는 이들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에 나서고, 마지막 순간 2천년 전 예수님처럼 한 아이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게 된다. 이는 ‘달리다꿈(소녀야 일어나라)’의 기적이다.

이같은 구조는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전편 <오두막>의 구조와 다른 듯 흡사하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겪은 고난과 이로 인한 상처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점,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점, 소설이라는 장르에 기대어 판타지적 요소들을 가미해 주인공들의 깨어진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저자인 윌리엄 폴 영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큰 시련을 겪은 후, 모든 비밀과 아픔, 치욕적인 기억들을 풀어두는 마음 깊은 곳의 공간인 ‘오두막’을 소재로 쓴 작품 <오두막>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 지난 2009년 한 차례 방한했다. 저자는 ‘교차로’를 뜻하는 단어 ‘crossroad’ 대신 중의적 표현 ‘Cross Roads’를 제목으로 삼은 이번 작품 <갈림길> 초고 3만 5천 단어를 단 11일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12일 두 번째로 방한한 영을 서울 여의도 동 세계사에서 만났다.

“두 작품을 다 읽었는데, 이번 작품은 주인공이 길을 떠난다는 점에서 <천로역정>과 다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작품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얻었나.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글을 쓰지는 않는 타입이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웃음). 저는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끊임없이 이를 탐구한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은혜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은혜를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던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를 바꾸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돼 있으면, 끔찍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보호망을 쳐 놓고 그 안에서 끔찍도 하지 않으려 한다.

작품의 모티브는 여러 곳에서 얻는다. C. 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The divorce of heaven and hell·홍성사)>이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썼던 <오두막>과 달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 쓴 <갈림길>은 동키나 마음가짐, 신앙적 자세에 있어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난 4년간 전세계를 다니면서 주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오두막>을 쓸 당시에는 직업을 3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웃음).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오두막> 이전에도 글을 쓰고 싶은 작가였고, 지금도 그렇다. 물론 <오두막> 이후, 많이 변했다. 좋은 변화가 많았지만, 인생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곁에 친구들이 있고, 아내와 자녀, 손주까지... 여전히 사랑스럽다.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늘 묻는 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내게 중요한 건 뭐지? 하는 세 가지... 이런 질문들을 다뤄본 것이 제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큰 고난에 맞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비신자나 신앙이 식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신앙이 회복하려면, 꼭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의 마음이 좀더 가난해져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늘어나는 것인가.

“그런 고통과 고난이 필연적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요한1서에 나와 있듯,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저는 사람들이 눈앞에 죄나 악, 피해나 고통 등을 하나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를 겪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죄악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만드실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존중하신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이다. 악이 생겨난



<갈림길>의 윌리엄 폴 영은 현재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글을 쓰며, 가족과 함께 축복의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방금 말씀드린 요한1서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 마디가 비난이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악의 섞인 말을 저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이신지 악이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을 것이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적적인 장치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지 않나.

“그게 바로 소설, 이야기의 힘이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을 보면 진리를 가르치시려 끊임없이 비유나 이야기들을 활용하시지 않나? C. S. 루이스는 이를 ‘Watchful Dragon’이라 표현했다. 서구 패러다임에서는 서스펜스가 진실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영상이나 개념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동전을 쥌는 여성이나 커다란 바

위, 높은 탐처럼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장의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모두 좀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픽션(fiction·소설, 허구)’은 이 모든 내용을 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다. 픽션에서는 우리가 등장인물을 정의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탐구해야 한다. 제가 시도했던 탐구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등이다. 한국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웃음).”

“마지막으로 다음 작품에 대해 귀뿔해 달라.

“저는 항상 작가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작가이다. 한때는 제 작품에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작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리고 차기작은 10가지 정도를 구상 중인데, 주제는 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르는 역사나 과학 소설, 또는 일반적인 스토리도 생각 중이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대용 기자

## 2013년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결속과 공동체(Connectedness and Community)”는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장에서 통하는 해법을 함께 배우는 지적 공동체, 사역에 필요한 정보와 사역 기회를 소개하는 이끌어주는 협력 공동체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 과정 안내

- 월드미션대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은 TRACS 와 ABHE, 그리고 ATS(Candidate) 등의 인가를 받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입니다.
- 입학신청 마감일: 2013년 4월 12일
- 각종 안내문 및 서류: 본교 홈페이지(www.wmu.edu) 목회학 박사 과정 배너를 클릭하십시오.

#### 입학 요건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 M.Div 성적 (GPA) 3.0 이상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험
- 본 과정은 토폴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입학 문의

- 담 당 :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디렉터 송운철 교수
- 연락처 : 213-388-1000, 213-388-1855 (Ext. 132)
- e-mail : unsong@wmu.edu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교수진 (2013년 여름학기)

DM761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urch



이연길 교수  
텍사스 달라스 빛내리교회 원로 목사  
D.Min.,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DM721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for ministry



김시남 교수  
The former President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Ph.D., UCLA(in the Old Testament Study)



총 장: 송정명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선 박사 Ph.D., D.Mi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일반 입학문의  
213.388.1000 Ext.106  
e-mail: admission@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 사순절에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은...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있었다. 그 첫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십수년간의 준비와 7년간에 걸친 대 공사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하여 완전히 훼파되고 만다. 두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시 이들의 인솔자였던 스룹바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식민지 상태에서 돌아와 열악한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성전마저도 시리아 군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약탈되고, 더럽혀지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지성소까지 완전히 유린되어 볼품 없는 건물로 전락하고 만다.

세번째 성전은 헤롯에 의해 이루어

진다.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0년간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한 것으로 헤롯은 생전에 자신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헤롯의 성전은 완공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다. 이때 디도 장군은 성전의 서쪽 벽 일부를 남겨 두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삼기 위함이었다.

후대에 사람들은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였다 해서 붙여지기도 했고, 무너져 버린 돌과 돌 사이에 아침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지기도 했다. 1967

년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은 2천년간 잃어버렸던 이 벽을 되찾았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이 벽을 지켜오고 있다.

지금도 슬플 때 이벽을 찾아가서 울고, 기쁠 때면 이 벽 앞에서 춤을 추며, 어려울 때는 이 벽을 향해 서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세번에 걸쳐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것 같다. 저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과 화해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된 것이다.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진정으로 화해시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수천년간 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고, 능력으로 여기

게 하였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야 한다. 통곡의 벽에 아무리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며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며,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눈물과 찬송과 기도의 역사를 이룰 때, 진정한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 사랑할 때는 무촌, 미워질 때는 원수인 부부



현순호 목사

기 위해 짝을 찾는 것 처럼 인간도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인가? 또는 나의 부족한 점을 짝을 통하여 보충하려는 생존의 방법인가? 여하튼 나를 위해 반려자를 찾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부부가 된 후에 자기가 기대했던 반려자가 아니면 언제나 남남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부부는 좀 다르다고 본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반려자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행복은 소유적인 면 보다 창조적인 면이 더 많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못 사는 강한 접착제는 변함없는 사랑뿐이다. 그 사랑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다. 내가 아는 김영자 씨 가족은 미국에 와서 잡일부터 시작했다. 남편은 야간 일을 하며 밤 운전을 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해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았다. 주위에서 이혼하라는 권고도 받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며 부양까지 하면서 두 남매를 잘 키웠다. 자녀들도 커 가면서 엄마, 아빠의 뜨거운 사랑을 존경하며 주말에는 파티타임으로 일하면서 엄마를 도왔다. 15년을 지내면서 남편이 차차 회복돼 지금은 큰 불편없이 잘 산다. 이들 부부는 가진 것은 없으나 강한 사랑이 있다.

반면, 원수 같이 여기면서도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가 꽤 있다. 싸우는

날이 더 많고 거칠고 화난 목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옆집으로 건너가 이웃으로부터 불평을 듣기도 한다. 치고 받고 찻잔이 날아가 벽에 쏘이는 등 그렇게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녀들이 불쌍해서, 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부부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일 것이다.

A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의사이고 아내는 간호사다.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곳, 나무와 꽃이 잘 어우러진 넓은 정원,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도 있다. 두 남매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하는 모범생이다. 그 집에 심방간 분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오면서 하는 말. "세상에 저렇게 이상적인 부부가 어디 또 있을까!" 찬사를 마지않는다. 그런데 그 집의 파출부를 통해 그 가정의 비밀이 새어 나왔다.

그 부부는 서로 말을 안 하고 식사는 물론 외출도 같이 가는 일이 없단다. 그러나 손님이 집에 올 때는 잉꼬 부부로 위장을 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자녀들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날, 둘은 남남으로 돌아섰다. 물론 교회도 떠났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랑이 없는 원수같은 부부였다.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접착제는 무엇일까? 반려자를 나보다 더 배려하는 사랑이다. 그곳에는 존수도 돈도 넘어서는 강한 힘이 있어 부부는 세상을 밝게 살아가며 자녀들도 보고 배워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박용덕 목사  
남주빛내리교회

## 복음적 십자가

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다. 전자는 고난은 고난이 되 신앙 때문에 얻게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다. 반면 후자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다.

혹시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해야 한다. 하늘에서 당신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세상의 욕심대로 살다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삶으로 얻게 된 결과일 뿐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고 회개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임에도 회개할 생각보다는 자기 합리에 빠져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이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적 십자가를 구별하길 바란다.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정안내 : Sports Mission College를 American Sports University 로 잘 못 게재 됨을 정정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 눈동자와 눈알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한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하고만 사십여 년이 넘게 지내셨기 때문에 말이나 생활방식이 한국 사람보다는 미

국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예배 중에 기도시간이 되었는데, 여자 성도님 중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 문구가 너무도 아름답고 심오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가슴에 살갑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라는 단어를 자기도 언제고 대표기도 시간에 써먹으려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했기 때문에 ‘아이 볼(eyeball)’이라

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써먹을 기회가 너무도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인 이민교회에서 교수님께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억해 두었던 그 문구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그만 ‘아이 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동자’라는 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몰리게 되자 교수님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아알’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자(ball)’나 ‘알(ball)’이나 같은

뜻이지만, 듣는 청중들에게는 전혀 다른 어감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며 웃음을 참는 사람들 때문에 교수님은 결국 그 날 설교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의 경험담입니다.

살다보면 ‘말 한마디’나 ‘단어 하나’ 때문에 곤경을 치르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앞으로의 정치 방향을 묻는 원로대신들에게 먼저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정치를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한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내 아버지가 가족체적으로 너희들을 때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쇠체적으로 때리겠다!”

이 순간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생각보다 약한 왕도 아니었고 쇠체적을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단지 ‘눈동자’를 ‘눈알’로, 그리고 좀 더 강인하게 ‘눈갈’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다같은 소리인데, 표현의 차이가 민족을 둘로 나누는 ‘아픈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약 3:2)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동자’와 ‘알’의 차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넷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사랑의빛선교교회

세 단계로 나누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립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왕조의 삶 속에서의 언약의 갱신’에 이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셋째, 예수님의 새 언약

처음은 사복음서에 선포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유대왕국이 망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을 선지자의 말씀의 인도가 없는 암흑시대를 지난 후에 독생자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겔 37:24)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막 1:14-15, 마 4:15),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참고, 요 1:12)”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복음)으로 선포하셨으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십계명과 율법인 산상수훈(마 5-7장, 눅 6:20-49, 1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세부법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의 근본임(마 22:37-40, 막 12:29-31, 눅 10:27, 요 15:9, 12)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창조(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선포와 치유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은 언약을 통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한 번에 영원히(히 10:10-18)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보혈의 희생(막 14:24, 사 53:4, 10,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으로 인하여 아담의 원죄로 깨어졌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사랑의 언약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선포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새 언약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막 1:14-15)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에 관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제자들에 의하여 유대민족을 넘어서 이방에게로 전해졌으며 특히 바울 사도와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이 전파되므로, 오직 믿음으로만의 룰게 되는 이신칭의의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핏줄에 의한 유대민족이 아니고(마 8:11-12)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1:12)라고 정의하시므로,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창 12:2-3, 17:4) 세상의 온 민족에게로 확대 되었습니다(사도행전 전제, 예수님의 비유 마 22:1-14, 눅 14:15-24). 이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

은 신약은 물론 구약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예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구약에서 이 복음의 약속을 대표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사 53:5-6)는 말씀과 ‘내가 일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기 19:25)는 말씀입니다.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히 8:1-10:18)은 큰 바혜 속에서 선포되는데 이 바혜는 로마제국의 박해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그 시대의 유대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의 도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탄의 방해로 받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며, 공동서신은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하나님의 백성의 새 언약)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 제자들의 글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히 8: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요 3:16).

마지막은 언약을 지킨 자(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계 21-22장)으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여러 환란을 당한 후에,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거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경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펼쳐집니다(계 21장). 또한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수와 강과 생명나무가 보여지며 그 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며, 창세기 3:18에 표현된 ‘훼손된 자연의 회복’입니다(계 22장).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뉘셨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완벽하게 단장한 교회가 되는 것이며, 창세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회복된 백성이 회복된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창조주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창 17:7과 계 21:7은 성경 전체의 수미쌍관으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Life

## 소통과 불통 “빌라도 부부”

### 상호 대화 통한 진정한 소통 이뤄져야

가정 칼럼

사람은 말 한 마디에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한다.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화내는 말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이해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관계를 가까이하게 한다. 소통하는 부부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살리지만 불통하는 부부는 침묵 또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마음의 벽을 쌓는다.

빌라도가 아내와 소통하는 부부였다면 최소한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절을 통해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게 된다. 본디오 빌라도는 초기 로마시대 유대지방 총독(주후 26-36)으로 일

했다. 그는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옮겼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황제 화상이 있는 군기를 걸고 경배하게 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학살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다.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크게 놀라워하였다. 그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기 때문이었다(마 27:15-18).

빌라도 총독이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 그 당시 사형권은 총독에게 있었다. 그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

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 많이 태웠나이다”라고 당부하였다(마 27:19). 그런데 빌라도의 귀는 아내가 보낸 전갈보다 성난 군중에게 쏠려 있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 군중들은 “바라바로소이다” 하였다. 그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고 물으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였다. 그가 다시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였다. 그는 군중의 동요를 두려워하여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이게 했다(마 27:20-26).

빌라도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녀는 중책을 맡고 있는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선 관심사였다. 빌라도의 인생은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자기 직책, 자기 문제, 자기 일정, 자기 식사, 자기 약속 등..... 아내는 부차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다. 빌라도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부분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갈망한다. 남자가 여자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여자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알아주는 것이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말을 원한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잔소리와 불멘소리가 아니라, 살맛 나고 기운 나게 하는 말을 원한다. 여자가 남자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기분을 으쓱하게 하는 칭찬을 하는 것이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 데 텔레비전이 방해가 되면 그것을 끄는 것이 좋다. 부부가 기도하는 데 휴대폰이 장애물이라면 그것도 끄는 것이 좋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자녀들이 번거롭게 하면 따로 부부가 함께할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좋다. 부부는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계이다. 서로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대화는 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청중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선이 목사(솔라미상담소 연구원)

건강 칼럼

## 냉찜질과 온찜질, 제대로 알고 하기

### 잘못하면 오히려 증상 악화된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날씨가 풀리면서 추위 때문에 미뤄왔던 운동을 하기 위해 등산이나 조깅, 골프, 자전거 타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려면,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무리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이나 삔끗하여 발생하는 허리나 팔, 다리 관절의 염좌입니다. 이런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여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여 엉뚱하게도 온찜질을 해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기간을 더디게 하므로,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질병 특성과 증상 및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의 사용 구분에 대해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종종 냉찜질을 해야 할 때에 온찜질하는 잘못된 사용으로 염증이나 부종이 악화되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으며,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부종을 예방하는 효

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기, 즉 손상 직후부터 2~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고, 그 이후 만성기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손상 후 여러 날이 지난 만성기라도 손상 부위에 열감이 지속되고 피부색이 붉거나 부어있는 경우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반복되는 온찜질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빠거나 다쳐서 근육이나 인대 등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박상으로 인해 몸에 멍이 생겼을 경우 혈관이 파열돼 생기는 내부 출혈현상도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의 억제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볕이나 뜨거운 것에 데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우, 찬 물수건

을 충분히 대주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요통, 어깨 결림, 관절통 등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성 퇴행성질환에 많이 응용됩니다. 손발이나 하복부가 냉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한 운동 후에는 근육이나 관절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하는 것은 피하고 찬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감이 있거나 부기가 있다면 얼음찜질이나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메카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권강주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포르테**

##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봉 ▪ 1박스(3개월분) 360봉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p><b>EQUUS SIGNATURE 2013</b></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4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SONATA GLS 2013</b></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10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ELANTRA GLS 2013</b></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3,199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b>\$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ACCENT GLS M/T 2013</b></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b>\$89 Lease</b> per month plus tax</p>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3월31일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888.409.3002**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이스라엘 탐방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식탁 메뉴 하나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식탁 메뉴 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의 양식은 삶을 유지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위하여...



시렛 청과물 가게에서 찍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에 빗물을 저수하여 부족한 물을 활용하였다. 추수하고 남은 잉여 곡식은 거대한 저장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였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양식은 빵, 포도주, 기름과 관련이 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축을 통해서도 양식을 취하였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산물은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올리브, 석류, 그리고 종려나무...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곡식 저장용 대형 토기, 두루Tentmaker [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이주섭 목사 제공》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양식은 새로운 음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쌀은 페르시아 시대에 팔레스틴에 소개되었으며...

기 어렵지만, 그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2007년 9월,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의 엘리 슈크론(Eli Shukron)과 하이파 대학 고고학 교수 로니 리흐(Ronny Reich)는 예루살렘의 다윗 성을 발굴하고, 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고학자들은 발견된 생선 뼈들을 하이파 대학의 이 분야 전문가인 오므리 레나우(Omri Lernau)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윗 성에서 발견된 생선 뼈들은 주전 9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뼈들의 연대와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어문(fish gate)으로 불렸던 성문도 있었다(역대하 33:14, 스바냐 1:10, 느헤미야 3:3).

문(fish gate)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주전 5세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력한 사람들을 책망하였는데,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과 관련되었다.

주전 5세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력한 사람들을 책망하였는데,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과 관련되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두로 사람들은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도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가정의 식탁에도 올라오는 생선이 과거 예루살렘 사람들 식탁에도 식사 메뉴였다는 증거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이 날로 새롭다.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HEALTH

여드름 원인, 제대로 알고 치료해야

청소년기와 성인을 통틀어 모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부질환인 여드름. 여드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드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여드름의 원인으로는 피지의 과다분비이다.

피부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피지가 분비되지 못해 피부 속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스트레

스,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환경적 요인 등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화장품이 피부에 닿아있는 시간을 줄이

고, 화장을 한 후 깨끗한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피부과에서 각광받는 여드름 치료법으로는 스피쿨링이 있다. 청정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면동물의 스피쿨을 순수하게 정제한 천연 추출물로 피부 진피층에 침투시키면, 스피쿨이 72시간 동안 작용하여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강남 아이유의원 오종탁 원장은 "스피쿨링은 천연추출물을 사용하여 피부에 침투시키는 치료법으로 각질 탈락과 함께 여드름의 원인이 치료될 수 있으며, 홍조완화, 피지조절, 항염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 large '\$9.99' price tag, a comparison table of services, and promotional text for a 2-month free trial. The table compares iTalkBB, AT&T, Verizon, and Time Warner services.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http://www.easy2424.com)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정액만 음이온 원액이신 분!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00

로테오 캘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귀하를  
푸엔테힐스 현대로  
초대합니다.”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 2013 EQUUS Signature

# \$539

+TAX (STK. 066759)

48Month lease /12k mile/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5,359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 2013 SONATA GLS

##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2,999

MSRP \$22,770

PH HYUNDAI D/C \$1405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 \$125

+TAX (STK. 693375)

# \$115

+TAX (STK. 729686)

36Month lease /12k mile/ T.D.O 3,999

MSRP \$19,350

PH HYUNDAI D/C \$945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 2013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속에!'

## L.A. 지역

장소: 동양선교교회



강사  
민경엽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로스엔젤스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213) 383-4982

설교: 민경엽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L.A. 동부 지역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강사  
김민섭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송병주 목사)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626) 913-6611

설교: 김민섭 목사 (엠마오장로교회)  
주최: LA 동부교역자협의회

## 리버사이드, 빅토빌 지역

장소: 창대교회



강사  
정충재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6시

장소: 창대교회 (담임 이춘준 목사)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909) 388-2940

설교: 정충재 목사 (레드랜드한인교회)  
주최: 샌베르난디도교역자 교회협의회

## 밸리 지역

장소: 은혜와 평강교회



강사  
류재덕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곽덕근 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370-0146

설교: 류재덕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주최: 샌퍼난도밸리 한인교역자협의회

## 벤추라, 옥스나드 지역

장소: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사  
조인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6시

장소: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상영 목사)  
291 Anacapa Drive, Camarillo, CA 93010  
(805) 389-3161

설교: 조인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주최: 벤추라교회협의회

## 사우스베이 지역

장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강사  
구진모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 이종민 목사)  
1880-190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310) 618-2222

설교: 구진모 목사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주최: 사우스베이목사회

## 세리토스 지역

장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강사  
이상명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담임 석태운 목사)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562) 402-2919

설교: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주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소: 은혜한인교회



강사  
진유철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설교: 진유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 인랜드 지역

장소: 인랜드 교회



강사  
박충길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909) 622-2324

설교: 박충길 목사 (인랜드영락교회)  
주최: 인랜드교회협의회